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28호)

매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08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대한척수학회 회장 이범석 교수님 특강 척수재활프로그램,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08.28)



8/28(수) 오후에 4층 재활치료실에서 대한척수학회 회장 이범석 교수님께서 '척수재활프로그램,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는 1.척수재활에 대한 사명과 열정은? 2.척수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는? 3.척수재활의 전문가 되기의 순서로 진행해주셨고, 국립재활원에 들어온 계기에서 부터 재활원에서 시행한 11가지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재활의 정의를 '재활의학은 구조된 생명을 살 가치가 있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는 의학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평생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훅 느껴지는 환자가 있는데, 이런 환자를 놓치지 말자며 '한 번에 한 사람씩 집중하자.'고 전하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함께 가치있는 한걸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입직원교육 (08.10)

어떤 물건에 ‘새’라는 글자 하나를 붙이면 요술처럼 설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새책’, ‘새옷’, ‘새구두’. 헌 구두에 설렘이 없듯 헌 생각에도 설렘이 없습니다. 설렘이 없다는 것은 의욕도, 희망도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앞에 ‘새’라는 글자 하나의 마법을 부려 보면, 무겁던 생각이 새처럼 가볍게 날아오를지도 모릅니다. _정철「내머리 사용법」

‘새직장’, ‘새식구’

8/10(토)에는 9층 회의실에서 신입직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열렸던 교육 중 가장 많은 인원인 21명의 ‘새식구’가 함께하였습니다. 티타임을 시작으로, 아이스브레이킹(콜마이네임), 병원장님 인사말, 병원소개 시간(1.우리는 왜 이곳에서 함께하는가, 2.함께 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3.우리는 어떻게 일하는가, 4.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은)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미션 수행 시상을 시작으로 전산, 감염, 소방 등 다양한 의료기관 필수교육을 진행했으며, 직장인 예절교육, 장애인식개선,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나의 비전 선포와 함께 우승조 발표, 선물 증정, 소감 나누기, 만족도 조사 등 소담소담 마무리를 하며 단체 사진 찍는 것을 끝으로 신입직원교육을 마쳤습니다.

여름 내내 청산을 이루어 녹색을 함께 해오던 나무들도 가을이 되고 서리가 내리자 각기 구별되듯이, 여름에 입사한 21명의 신규입사자 직원 분들도 계절의 변화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길 바랍니다.





신입직원 교육을 통해 의미있었던 점은?

- ☑ 내가 근무하는 해나행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 다 같이 참여하여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이전에는 없었던 저의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졌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 ☑ 동기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 장애인인식개선 강의를 통해 그들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 동기들과 만남, 해나행의 정체성, 각자의 미션공유
- ☑ 해운대 나눔과 행복 병원을 더 알아가고 동기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다양한 직군의 동기들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 좋았으며 장애인식교육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 ☑ 장애인 인식개선 및 병원장님을 토대로 한 나행의 미션과 비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의미 있었음
- ☑ 일터로 지루할 수 있는 환경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 ☑ 멋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 ☑ 타부서 직원들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서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 해나행이 사람을 돕는다는 비전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곳이 라는 걸 더욱 알게 되었고, 많은 부분의 작은 보이지 않았던 노력들로 참여자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 나의 비전 찾기
- ☑ 장애인의 재인식
-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참여자라는 생각
- ☑ 인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고 안전과 복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습니다.
- ☑ 일을 하며 병원이 크다보니 조직도를 몰라 곤란한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교육을 통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 해나행과 함께하는 나의비전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 비전을 통해 삶을 통찰할 수 있었다.
- ☑ 직장 교육이라는 개념을 넘어 인생을 돌아보고 재구성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 ☑ 재활 병원이라는 점도 특별했고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이라는 교육도 감사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병원 생활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톡톡’ (08.08)

2024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2회차 마지막 날로,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 4일(목) 첫 시작, 수국, 미동댁, 커피공주, 커피공주 바라기, 이여사, 사랑꾼 남편, 꽃분이, 아침햇살, 춘식이, 할머니 등 나의 별칭을 짓고 마음을 나누어 갔습니다.

발병 후 병원에 오게 된 과정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위로를 건네고, 위안을 얻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서 이야기하기 쑥스럽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야기가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와 ‘번개 모임’을 갖기로 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서로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이제는 병원 입원 동기로서 더 알찬 희망의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며 마음톡톡 2회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뉴스포츠 (07.31)

이번 뉴스포츠 시간에는 보치아와 술런을 진행하였고 신규 참여자 2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게임 규칙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팀을 이루어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접해보시는 스포츠라 원하는 방향으로 잘되지 않는 분도 있었지만 처음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잘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무더운 여름날 잠시나마 웃음과 즐거움을 가졌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님은 부모님과 함께 퇴원 이후 혼자서 운동시설이 가능한지 여부와 프로그램의 확인을 위해 함께 방문하여 PT에 대한 체력 TEST와 간단한 체험을 통해 차후 운동과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퇴원 이후 주2~3회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밖으로 한걸음씩 (08.07 / 08.21)



이○○님과 휠체어러키체험을 위해 진영스포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는 길이 힘들어질까 싶었지만 다행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러키전용휠체어로 이동한 후 휠체어러키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몸을 풀기 위해 공을 주고받으며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2팀을 나뉘어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이○○님도 참여하셨습니다. 공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상대방의 철통같은 수비로 아쉽게 넣지 못하고 경기는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난후 게임을 재밌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아쉬워 하셨습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8.09)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강○○, 차○○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강○○, 김○○님이 수상하셨습니다.

꾸준한 출석과 자립으로 한 달 동안 재활에 열심을 다하신 참여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12대 꿀꺽왕 시상식 (08.20)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여,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하고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12대 꿀꺽왕이 되신 참여자분은 길○○님이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꿀꺽왕이 되신 분들께 축하의 한마디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8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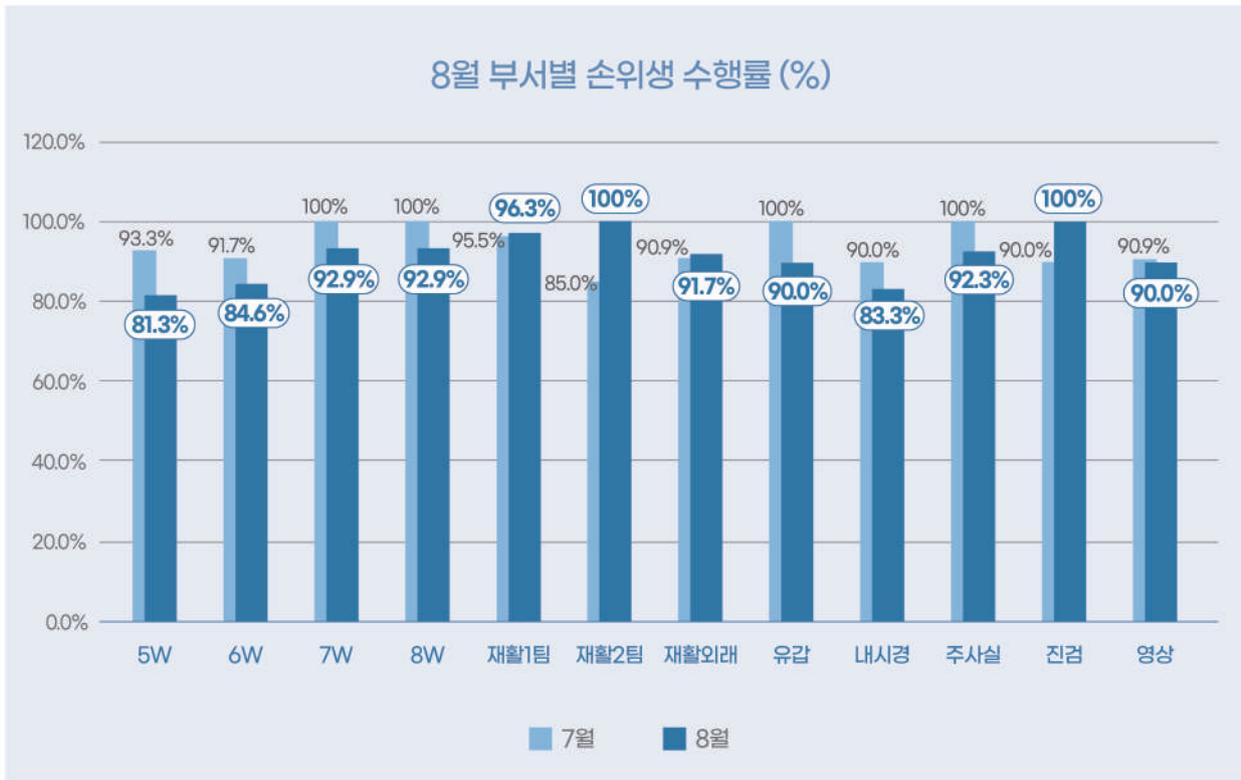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08월 01일 ~ 2024년 08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4년 7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64	150	91.5%	-1.3%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인생의 터닝 포인트, 본원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나다

김○○ 참여자는 15년 경력 전문 일본 가이드로 뇌경색 발병 후 좌측 편마비로 인해 재활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참여자와 첫 사회사업 상담 시 경제활동 중단,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셨고 이에 보호자와의 추가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가림은 심하지만 소통의 욕구는 강한 편으로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 집단상담 마음톡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적극성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직업복귀 욕구 충족을 위해 재활의학과 진료부장님께서 직업재활 훈련을 제안해주셨고 사회사업팀과 함께 사회복지 프로그램, '찾아가는 일본 여행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 참여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지, 교통편, 지역 맛집 안내 등 여행계획을 컨설팅함으로써 본원에서 직업재활 훈련 경험을 쌓고 자신감과 사회·직업 환경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결심하다

발병 후 자택을 처분하여 퇴원이 가까워진 시기에도 퇴원 경로와 돌봄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고 가족의 권유로 갑작스레 요양병원 전원을 결정하셨습니다.

김○○ 참여자는 사회복지 의지가 있으나 가족 간 지지체계가 약화로 혼자 지역사회 복귀 시 두려움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참여자가 자택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퇴원일까지 일주일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 상담을 통해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해운대구 재가의료급여사업 제도를 적극 안내드리자 참여자의 마음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고 퇴원 3일 전, 고민 끝에 요양병원 퇴원이 아닌, 자택 퇴원을 결정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참여자가 처음으로 낸 의견을 수용하여 빠르게 해운대구 내 원룸을 계약하셨고 사회사업팀에서는 긴급히 해운대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생계급여 문의와 재가의료급여사업 신청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구 재가의료급여사업이란 날개를 달고 꿈꾸던 일상생활로 복귀하다

참여자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 주치의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생계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해당 동 의료급여 관리사와 사회사업팀이 함께 재가의료급여사업 케어플랜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의료, 영양, 돌봄, 이동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모두의 도움으로 김○○님은 안전하게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 참여자는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오해를 풀고 의사 결정권을 찾아 나가며 '자택으로 퇴원을 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셨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지금 상황이 꿈만 같다고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퇴원 후 본원 외래재활을 이용하며 미뤄왔던 장애등급 신청도 직접 마무리하셨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외래 재활치료 시에도 지속적인 상담, 자원 연계를 통해 참여자가 가정 및 일상에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외래 재활치료가 끝나면 일상을 채우는 다양한 여가 활동과 자활사업 연계까지, 김○○님의 사회복지 준비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김○○ 참여자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며 본원에서도 김○○님의 사회복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대상	성별	나이	보호유형	대상질환	발병일	입원기간
		남성	50대	급여 2종	뇌경색	2022.07.	2022.07 ~ 2024.07
참여자 사항	가족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형태 : 독거 가구(미혼) ■ 주보호자 : 형 ■ 가족 지지체계 낮음 					
	심리·사회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입원으로 인한 우울감 ■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족의 갈등 ■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 약화 					
	경제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치료 지속 지지체계 필요(치료비 지원사업) 					
	주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없음 					
	문제사항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욕구 ■ 자택 및 직업 복귀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	사회복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경로 : 자택 ■ 보호자와 상담 후 거처 마련, 가정환경 평가 진행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상담 ■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 PG ■ 정서지원 : 마음톡톡 PG ■ 직업재활 훈련 : 찾아가는 일본 여행 컨설팅 PG 운영 					
	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 수급자(의료급여 2종)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신청 ■ 해운대구 재가의료급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 : 본원 외래치료 연계 - 영양지원 : 엄마의 마음 반찬서비스 주 1회 제공 - 돌봄지원 : 가사간병서비스 C형(40시간) - 이동지원 : 외래 진료 시 택시비 지원 ■ 해운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안내 및 연계 계획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자립생활협회 업무협약식 (08.24)

8/24일(토)에 특별한 업무협약을 위해 멀리서 세 분이 병원에 찾아주셨습니다.

일전에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전환재활서비스'라는 주제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특강을 해주신 재활학박사 박종균 교수님과 함께 민솔희 박사님, 그리고 (사)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자립생활협회 김지혜 회장님께서 오셔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생활과 인간다운 삶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RG Active Rehabilitating(RG), 해석하면 적극적인 재활이라는 뜻의 용어인데요. 이는 스웨덴의 재활 프로그램(RG)으로 이 프로그램의 국내 안착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주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도장애인 재활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개선되어 중도장애인이 병원퇴원이 목표가 아닌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데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갑상선유방팀 공수선 팀원 (08.23)



이벤트 프로그램

아기 알로에 모종 심기 (08.22)



이번 달 프로그램은 '아기 알로에 모종 심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아이스브레이킹으로 특정 단어를 본 후 그림을 신속하게 그리고 맞는 게임, 캐치마인드를 통해 참여자 보호자들이 기분전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참여자, 보호자가 함께 알로에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 모두 손을 이용하여 화분에 흙을 담으며 즐거워하셨고 알로에를 집에서 키워본 경험이 있다며 알로에 키우는 법과 효능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옛 기억이 난다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8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5W) 송미옥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5W) 송은희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5W) 안혜정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6W) 김하정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6W) 이경미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6W) 정혜정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5W) 김지안 간호사



재활간호팀(7W) 김지안 간호사



재활간호팀(7W) 박혜민 간호사



내과내시경팀 손정은 간호사



재활의학과 박여진 과장



재활간호팀(7W) 손은지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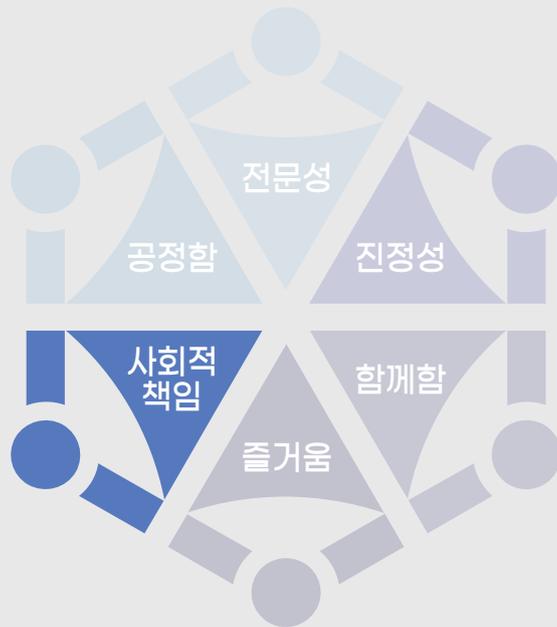


재활간호팀(7W) 송영지 간호사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은 진정으로 오로지 환자들의 회복을 바라며 의료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넘어 그 길을 두뼉뼉 걸어왔습니다.

그 발자취들의 가치는 재활인증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우리병원다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항상 꿈꾸어 왔던, 의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의 폭을 넓혀 나가려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연대를 통해 의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으로 역할을 할, '그 출발점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사회에는 노동, 보건의료, 시민, 사회와 함께 나눔과 연대를 통해 건강약자들(취약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지역내 의료취약계층,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지원 등)의 건강권보호를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병원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를 방문하였고, 빛과 소금같은 이야기들을 가득담아 왔습니다.

더불어 녹색병원은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이라는 또다른 새로운 도약을 준비는 그 길목에 우리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이 동참하며 건강한 연대의 보폭을 넓혀나가봅니다.

24년 뜨거운 여름, 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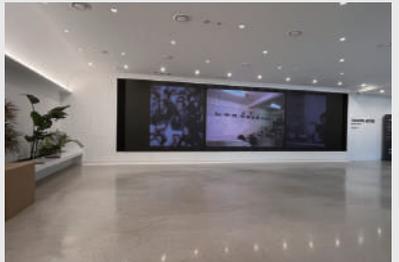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 도약을 위한 선진기관 견학 (08.09)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시민센터」



지난 8/9(금) 백선미 병원장님, 조지문화성장실 박선미 실장님,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님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 도약을 위해 선진기관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견학을 통해 사례를 학습하고 우리병원에 접목할 수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가치와 방향성이 같은 기관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정보 공유, 상생,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 참여자 치료비 전달식 (08.16)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이○○님이 선정되어 25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님은 아버지의 간병, 돌봄 문제로 경제활동을 중단해왔고 개인보험마저 모두 해지하여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뇌출혈 발병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 중단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 지원을 통해 참여자는 재활 의지가 더욱 향상되었으며 참여자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가족 또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게 되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용 서비스 (08.20 / 08.23)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자원봉사자께서 참여자를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0명이 신청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나행밥상’은 매일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편육정식

“말복(末伏)만 지나가면 이제 아침, 저녁은 선선해지겠죠?
말복에만 딱 잘 먹으면 시원해질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ㅎㅎ”

이런 대화와 함께,
어떤 새로운 음식을 해 줄 것인지 대한 기대를 담은 눈빛으로,
질문 세례를 받으며...

여러 후보 중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편육'으로 말복을 위한 특별한 한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기 전 실패는 당연지사ㅎㅎ

수 없이 맛있는 편육을 먹어본 끝에 도달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편육을 제공할 수 있음에,
말복 더위가 다 날아감을 느끼며,
함께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새콤달콤한 화채도
한상에 모아 보았습니다.

편육의 콜라겐을 몽땅 흡수하여 윤기 나는 피부 자랑하며,
윤기로 빛나는 피부처럼 남은 여름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영양팀은 새로운 맛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실패로, 맛있는 음식들을 수 없이 맛보며,
팀원들은 윤기를 살~짝 잃을 수도 있지만,
참여자분들을 위해 계속 도전 하겠습니다.

남은 여름도 모두 모두 화이팅!



마음을 전하다.

고객후기

친절한 간호사 황희경 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나눔과 행복 병원을 가족 모두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나눔과 행복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님, 접수 보시는 분들 모두 친절하셔서 언제나 방문 시 귀한 대접 받는 느낌으로 내방을 하곤 했습니다.

그 중 심장 내과 외래 황희경 간호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어 귀찮고 복잡한 회원가입 후 친절한 간호사 추천을 감히 드립니다.

일주일 전 심장내과 외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듣기위해 의사선생님을 기다리다 보니 점심시간이 다 되었고 전날 5시 이후 금식으로 검사 후 간단 요기를 하였음에도 허기가 몰려 저혈당 증세를 심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자신의 간식을 선뜻 내 주었고 이것저것 서류 떼어야 할 서류들이 많았는데 효율적으로 떼고 두 번 걸음 안하도록 상세히 요령도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푸신 것에 대해 꼭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방문에서도 보면, 저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내방객들한테 환자의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안내와 도움 주는 것을 보고 황희경 간호사님의 인성에 다시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즐거운 병원 생활하셨음 싶어 지면을 빌려 다시금 감사 인사 전합니다...

2024.07.31 김○○



마음을 전하다.

고객후기

박미경 의사선생님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글쓴이는 갑상선 질환으로 시내 유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8월초 변 검사 차 나눔과행복병원을 찾았다가 21년간 동아대에서 진료를 하셨다는 박미경 교수님 초빙광고를 보고 오늘 갑상선진료를 받았습니다.

예약하지 않았는데도 친절하게 오전에 혈액검사와 진료를 받게 안내해주신 내분비내과 간호사님 너무너무 친절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칭찬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안내담당이 친절하게 다음 진료처까지 직접인솔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박미경 의사선생님께서 검사결과지를 보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집에서 조심할 내용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 병원장님 박미경 교수님 잘 모셔오셨습니다.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과 병원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원 접수직원 간호사선생님 그리고 의사선생님 병원가족 모두 행복하십시오.

2024.08.14 김○○



영양팀장의 말, 말, 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8.14)

입추 후 첫째 경일, 말복(未伏)

[영양팀입니다]

“말복나락 크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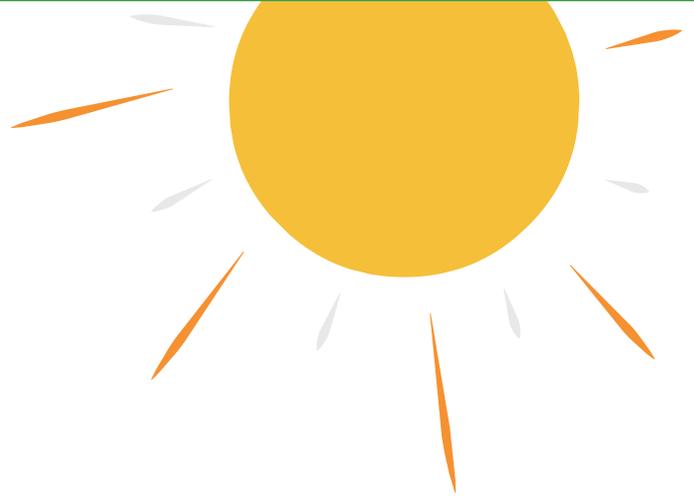
말복 무렵에는 일조량이 좋아 비가 쭉쭉 자라나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
귀 밝은 개가 이 소리를 듣고 짖는다고 해서 생겨난 속담입니다.

속담처럼 비를 쭉쭉 자라나게 하는 말복에
개가 왈왈~~ 멍멍~~짖는 말복에ㅎㅎ
해나행 가족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쭉쭉 자라나도록
영양팀이 아이고 아이고~~소리 내며ㅎㅎ
편육냉채, 비빔국수, 수박화채 등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음식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제 김종삼 부장님께서 말씀 하신 수박의 효과 기억하고 계시죠?
어쩌면, 그 효과 오늘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더워 “과연 가을이 오긴 올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계절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시원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피부로 느껴지는 그날까지,
영양팀은 열심히 지지고 볶아서,
몸과 마음이 쭉쭉 자라나길 응원하겠습니다.
(몸만 자라나면 슬퍼요~)



어른의 글쓰기

목표를 세우고 나자 흔들림 없이 나아갈 힘이 생겼다.

작년 3월쯤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글쓰기에 관한 책을 한권 읽고 있었다. 내용은 다른 책들과 유사하다. 무작정 써라. 일단 써라. 무엇이든 써라. 쓰고 또 써야 실력이 향상되고 뭐라도 고칠게 나온다는 내용이다. 머리는 이해하고 가슴도 공감하는데 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누구 하나 글 쓰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다.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만날 때 쯤, 습관처럼 폰을 만진다. 엄지손가락으로 몇 년째 똑같은 패턴을 문지른다. 인스타그램 앱을 터치하고, 눈은 곧 읽을거리에서 볼거리로 전환된다. 빠른 스피드로 화면을 위로 올리다가 멈춘다.

'별별챌린지66일 2기 모집'

66일 동안 매일 어떻게든 글을 쓰는 챌린지다. 날마다 다섯 가지 방식의 글감 단어도 정해준다. 다양한 플랫폼에 올린 후 인증하면 된다. 글줄도 언뜻 5줄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거다 싶어 바로 인스타 댓글에 문의를 했다. DM으로 연락이 왔고 망설임 없이 가입했다. 참가비 1만원을 이체했는데 이마저도 66일 완주 시 환급이 된다. 아마도 운영과 책임에 대한 비용으로 참가비를 설정한 듯하다.

오픈채팅방에 가입하는 순간 노란색 왕관을 쓴 방장봇은 친절하게 필독사항을 안내해준다. 몇몇 운영자들도 연이어 반가움을 나타낸다. 가볍게 답장을 하고 채팅방 인원을 확인했다. 160명 정도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반가움을 금치 못한다. 글을 쓰고 싶고, 글쓰기를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 그 습관이 사고전환과 실력향상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 가벼운 발걸음이지만 비장한 사람들일테다. 우리 자발적 글쓰기로 뭉쳤으니깐. 누가 쓰라고 시킨 사람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진 사람들.

책 읽다가 챌린지를 만났다. 동기부여가 한층 더 강해졌다. 목표도 명확하다. 66일간 이 여행에 완주하는 것이다. 많은 미디어와 책에서도 습관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6일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66일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 이 목표는 강한 성취동기를 불러 일으켰다. 흔들림 없이 나아갈 힘이 생겼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_개리 비숄《시작의 기술》(웅진지식하우스)

2기 챌린지가 시작할 때 채팅방 인원은 179명이다. 함께 하니 더 좋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들자 동료애도 생긴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상대적인 목표도 아니다. 그저 나 자신과 경쟁하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면 된다. 5줄이 버거운 날도 있겠지만, 5줄이 10줄, 20줄로 이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 적은 점들이 연결되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연결되어 면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는, 우리는 발전하고 있을 테니.

그렇게 나는 66일간의 별별챌린지를 완주하였고,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대단상을 획득하였다. 그 이후에도 3기, 4기, 5기 챌린지를 이어갔고, 그 흐름 속에 온 좋게 올해 1월부터 글로벌성장연구소 연구원으로 합류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 재치 있는 필력과 센스 있는 글들이 좋았다고 하며, 마침 약간의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한다. 라임을 통한 아재개그 글들이 이곳에선 통했는지도 모른다. 글을 좋아하는 모임이니깐.

나포함 17명의 연구원에는 서울, 인천, 대구, 목포, 진주, 울산, 부산 등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과 폭넓은 연령대의 연구원들이 존재한다. 책 1권을 출간한 연구원부터 8권을 출간한 베테랑 연구원도 있다. 대충 어렵잡아 절반이상은 출간경험이 있다.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하지만 상반기에는 회원들 전체와 함께 대전에서 세미나를 갖고, 하반기에는 연구원만 모인다고 한다.

어색함과 불편함을 즐겨보자.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교모임에도 나가보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해보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다 더 충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_김병완《40대, 다시 한 번 공부에 미쳐라》(함께복스)

오는 11월 나에게서 첫 오프라인 모임이다. 지역도 대전에서 부산으로 변경될 듯 보인다. 나는 새로운 만남, 모임, 낯선 사람들과의 어색함을 극도로 꺼려했던 혈액형 A형에 MBTI는 I(내향형)이다. 하지만 이 어색함과 불편함을 당당하게 맞이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나의 성장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인연들과의 만남일지 모르니깐.

문득,
우리 병원 내에서
글쓰기 모임 해보면
신청자가 많을려나?
ㅋㅋㅋㅋ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